지역 소식통

고창 바지락 오감체험 페스티벌, 5일 개막

'2023년 하전 바지락 오감체험 페스티벌'이 이번주 금요일(5일)부터 사흘간 고창군 심원면 하전어촌체험마을 일원에서 열린다.

바지락은 산란을 대비, 해수의 유기물을 흡수해 속이 탱탱하게 차는 5월이 제철이다. 행사에선 최상의 품질을 자랑하는 고창 하전 바지락을 시중보다 저렴하게 구입할 수 있도록 직거래 장터가 개설된다. 상시로 가격을 30% 이상 할인해 판매하는 한정판매 이벤트도 진행할 예정이다.

또 갯벌 체험과 바지락 까기, 바지락 쌓기, 바지락 무게 맞추기, 노래경연, 바지락 키즈존 운영 등 각종 체험행사가 마련돼 있다.

고창군 하전마을 갯벌은 세계자연유산과 유네스코생물권보전지역 및 람사르습지로 등록된 고창갯벌의 중심지역이다. 특히 조개의 육질도 좋고 맛도 좋아 전국 바지락 유통량의 50%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고창=김영식 기자

부안군, 개별공시지가 결정… 이의신청 접수

부안군은 2023년 1월 1일 기준으로 산정한 17만7,199필지에 대한 개별공시지가를 지난달 28일 결정·공시했다고 밝혔다.

개별공시지가는 토지소유자 등의 의견수렴과 감정평가사의 검증을 거친 후 부안군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결정됐으며, 개별공시지가에 대한 이의신청은 4월 28일부터 5월 29일까지 받는다.

올해 개별공시지가는 전년 대비 약 6.59% 하락하여 평균 18,714원으로 결정되었으며, 이는 국토교통부 공시지가 현실화율 조정에 따른 표준지 공시지가의 하락이 주요 원인으로 분석된다.

개별공시지가는 개별 토지에 대한 ㎡당 가격으로 부안군청 홈페이지에서 열람하거나 민원과 및 읍·면사무소를 방문하여 확인할 수 있으며, 인터넷 '부동산공시가격 알리미'를 통해서도 열람이 가능하다.

/부안=김석진 기자

부안마실축제 오늘 개막

공연·캠핑·체험·치유·놀이·여행 등 프로그램 다채… 매창공원 메인무대서

부안군 대표축제인 제10회 부안마실축제가 4일 부안군 부안읍 매창공원 메인무대에서 개막한다.

올해 축제는 '할머니의 품 속으로'라는 주제와 '부안여행 마실 FESTA'라는 슬로건으로 8개 분야 39개 프로그램으로 구성됐다.

8개 분야는 각각 '공연마실', '캠핑마실', '포토마실', '체험마실', '치유마실', '마을마실', '놀이마실', '여행마실'이라는 이름으로 구분했으며 8개 분야는 부안군 대표설화인 개양할미의 8명의 딸을 상징한다.

설화 속 개양할미는 8명의 딸이 있었는데 첫째 딸부터 일곱째 딸까지는 칠산어장 근처 여러 도서지역으로 보내 관장하게 하고 막내딸은 개양할미와 함께 죽막동 여우골을 지키며 칠산어장 전체를 관장했다고 한다.

축제 대표 프로그램은 부안군민들과 함께 만드는 야간 퍼레이드 '신들의 행차'와 음악을 통해 엄마 아빠가 품었던 꿈과 열정을 되찾아주는 '마마스 앤 파파스 뮤직 페스티벌', 조선 대표 여류시인 이매창의 삶과 시를 조명한 관객 참여형 뮤지컬 '흩날릴제' 등이 있다.

올해 축제는 기존 낮에 진행했던 퍼레이드의 시간을 저녁으로 옮기고 개양할미 설화를 축제에 적용하는 콘텐츠의 변화가 눈에 띈다.

퍼레이드 제목인 '신들의 행차'는 '밤에 거닐다', '밤에 이웃 사람을 만나기 위해 놀러 가다'라는 마실 본연의 의미와 개양할미를 비롯한 부안의 설화를 화려한 조명과 음악으로 표현함으로써 신나고 화려한 밤거리의 행렬을 만들어 낸다는 의미에서 나왔다.

'마마스 앤 파파스 뮤직 페스티벌'은 오늘날 본인들의 위치에서 열심히 살아가고 있는 엄마와 아빠들이 무대의 주인공이 되는 공연 프로그램이다.

기존 7080 콘서트와 버스킹과는 다른 개념으로 학창시절 밴드 경험을 했거나 직장인 밴드 등에서 활약하고 있는 전국의 엄마 아빠들이 팀을 이뤄 밴드 악기 세팅이 제대로 갖춰진 무대 위에서 창작곡 또는 커버곡을 직접 연주하는 전문 경연대회이다.

올해 처음 제작해 선보일 뮤지컬 '흩날릴제'는 기존에 갖고 있던 뮤지컬 공연의 개념을 탈피하는 새로운 시도인 장소 특정적 퍼포먼스이자 관객 참여 형태로 선보인다.

관객 참여형 뮤지컬은 무대와 객석을 엄격하게 구분하는 형식을 넘어 보다 자유로운 공간 위에서 공연을 펼쳐 배우들과 관객들이 한 공간에서 같이 호흡하며 즐기는 형태이다.

/부안=김석진 기자

노약자 건강 보호·여름철 냉방에너지 절감 '기대'

정읍시, 2023년 폭염 치약계층 쿨루프 보급사업 시행

정읍시가 시민 대상으로 '2023년 폭염 취약계층 쿨루프 보급사업'을 추진한다.

폭염 취약계층 쿨루프 보급사업은 어린이집, 유치원, 경로당 등 다중이용시설 옥상에 차열 페인트를 시공시 실제 시공비를 지원하며 시설당 100㎡이내, 최대 530만원을 지원한다. 올해 지원물량은 15개소이다.

쿨루프는 햇빛과 태양열의 반사와 방사효과가 있는 밝은 색 도료를 지붕(옥상)에 시공하여 지붕의 열기 축적을 감소하는 공법으로 시공을 하면 건물내부 열전달을 줄여 실내온도 감소 및 여름철 냉방에너지 절감이 가능하다.

신청 희망자는 5월 12일까지 정읍시청 자원순환과(충정로 237, 2층)에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정읍시 자원순환과 기후변화팀(☎ 063-539-8163)으로 문의하면 된다.

곽재욱 자원순환과장은 "앞으로도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다양한 친환경 사업을 추진, 취약계층 보호뿐만이 아니라 온실가스 감축과 탄소중립 실현에도 힘쓰겠다"라며 "어린이집, 유치원, 경로당의 많은 관심과 신청을 바란다"고 말했다. /정읍=김대환 기자

정읍시, 노인·장애인복지 시설 단체 간담회 통한 소통 행보

정읍시가 4월 25일부터 5월 2일까지 3회에 걸쳐 2023년 복지시책 전달과 현장 의견수렴을 위한 노인·장애인 시설단체와의 간담회를 통한 소통 행정을 펼쳤다.

2023년 주요 시책을 홍보하고 현장 건의 및 애로사항 청취를 통해 신규 복지시책 개발을 위한 본 간담회에는 노인·장애인복지시설장, 노인단체장, 노인회 분회장 등 66명이 참석했다.

정읍시는 관련 예산 1,800억원을 편성하여 △사회복지시설 평가 우수시설 인센티브 지원 △장애인·노인 전동보조기기 보험료 지원 △소규모 점포 경사로 보급 사업을 추진 중에 있다.

또한 공약사업으로는 △노인응급안전안심서비스 사업 300명 확대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사업 200명 확대 △노인 보행보조기 지급 등 복지사업으로 어르신들이 일상 생활에서 체감 할 수 있는 복지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한편 시에 따르면 정읍시 인구는 2023년 4월말 기준 10만4,458명으로 이 중 만65세 이상 노인 인구는 3만1,559명(30.2%), 장애인 인구는 10,084명(9.6%)이다.

강한석 노인장애인과장은"앞으로도 정읍시의 노인 및 장애인복지 실현을 위해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소통하면서 민·관이 함께 협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정읍=김대환 기자

고창군은 지난 2일 고창부안축협판매장에서 홍콩 축산물 유통업체인 유니온 라이징그룹(대표 Tony)과 고창부안축협(조합장 김사중)간 청춘한우 수출을 위한 MOU(업무협약)를 체결했다.

"지역 브랜드를 세계적인 브랜드로"

고창군, 저탄소 '고창 청춘 한우' 홍콩수출 추진

고창군은 지난 2일 고창부안축협판매장에서 홍콩 축산물 유통업체인 유니온 라이징그룹(대표 Tony)과 고창부안축협(조합장 김사중)간 청춘한우 수출을 위한 MOU(업무협약)를 체결했다.

고창 청춘 한우는 올 3월부터 시작되고 있는 농림축산식품부의 저탄소 축산물 인증제 시범사업 관련, 저탄소 한우 인증을 받았다. 오랜 기간 소의 개량을 통해 저탄소 한우 인증의 조건 중 사육 기간 단축 부분에서 획기적인 단축이 가능하게 되었다.

특히 롯데백화점 본점과 잠실점, 강남점, 분당점에서 상시판매하고 있으며, 명절 선물세트 1000개를 완판하는 등 고객층 확보에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고창부안축협 김사중 조합장은 "고창 청춘 한우는 높은 등급출연율로 마블링 양이 많으면서도 도축 개월령을 앞당겼기 때문에 육질이 더 연하다"며 "일반 소비자들이 이를 구별해내기까지는 시간이 더 필요하겠지만, 한우를 이만큼 개량하기는 쉽지 않다는 점에서 상품성이 매우 뛰어나다"고 말했다.

홍콩 유니온라이징 토니 대표는 "홍콩 시장에서 한우의 시장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된다"며 "맛과 식감이 좋은 고창 청춘한우의 성공적인 시장정착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청춘한우 김상기 대표는 "우리나라 식량자급화에 앞장선다는 마음으로 한우산업을 지켜나가기 위해 '고창 청춘 한우' 농가들은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심덕섭 고창군수는 "고창군 지역만의 특색 있는 브랜드를 세계적인 브랜드로 발전시켜 많은 관광객들이 고창을 방문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고창=김영식 기자

정읍시, 아동학대 예방 유관기관 합동 캠페인

정읍시는 지난 2일 '5월 어린이 주간'을 맞아 정읍경찰서, 시니어클럽 등 유관기관 관계자 20여 명과 함께 가두캠페인 진행 및 아동학대 예방 캠페인 부스를 운영하고 홍보물품 배부, 피켓·플래카드를 이용하여 아동학대 유형·신고요령, 긍정 양육 안내 등의 내용으로 아동학대 예방 캠페인을 진행했다.

이번 캠페인은 어린이들의 지위 향상을 위하여 5월 어린이 주간에 아동학대 예방 및 긍정 양육 캠페인 활동을 통해 지역 주민들에게 아동학대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워주고, 아동학대 신고 전화 및 긍정 양육 129원칙 홍보 등을 통해 지역 내 아동들의 권리보호 및 건강하고 행복한 성장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정읍시는 아동학대 예방 대응체계 인프라 구축 일환으로 하반기 내 아동보호전문기관을 신규 개소하여 학대 피해 아동의 치료, 심리상담, 사례관리 등 아동학대 예방 업무를 적극적으로 수행할 계획이다. /정읍=김대환 기자